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최병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을 맡은 지 벌써 일 년이 되었습니다.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돌아보면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업 선생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과 전임 이사장님들, 그리고 조영주 총무이사를 비롯한 이사들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 년 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부족한 제가 이사장으로서 그런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강석영 선생님께서 1972년 알레르기학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대한알레르기학회를 창립하신 지 40 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2012 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음을 자부합니다. 또 문희범 전 이사장님이 시작하신 알레르기 교과서 개정판을 출판하였으며, 지난 춘계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알레르기 심포지엄(East Asia Allergy Symposium, 전 한일알레르기심포지엄)과 학회 창립 40 주년 기념 행사를 통하여 학회를 회고해보면서, 회원들의 또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숙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1997 년 이후 사용하였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2011년 11월 13일 대한의학회에서 정식 명칭으로 인준을 받게 됨은 정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주신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 비과학회, 대한소아호흡기알레르기학회를 비롯하여, 특히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여러 이사님들께 이 지면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벌써 몇 번 말하기는 했지만, 1978년 제가 본과 4학년 때 임상선택실습과정에서 강석영 선생님께서 대한알레르기학회 Logo인 거북이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죠.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하여 결국은 경주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한알레르기학회가 그 당시 다른 학회에 비하여 출발이 늦었지만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거북이가 승리하듯이 다른 학회를 능가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1979년 인턴 말, 그 때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알레르기내과가 분과가 안 되었지만, 호흡기분과에서 알레르기를 선택한 것은 나의 인생에 가장 최선의 선택 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거북이가 승리하듯이 학회원이 1,200 명이 넘으며, 학술 논문의 질적, 양적 향상과 특히 영문학술지 AAIR의 SCI 등재 그리고 2015 세계알레르기학술대회 유치에 우리 학회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자부합니다. 물론 이는 전임 이사장님들과 회장님들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의 훌륭한 지도력뿐 아니라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 년 뚜렷한 성과 없이 보내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남은 일 년 동안도 초심으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 모든 회원들이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모든 회원들이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

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학술대회들도 원로 회원들과 젊은 회원들 모두가 다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발전과 2015 세계알레르기학술대회가 훌륭하고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문희범 대회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학회와 회원 모두가 세계화를 이루며 상생하고 승승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모두가 all-in 하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전임 회장님들과 전임 이사장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과 양보의 미덕을 보여 주신 박춘식, 민경업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5월 10일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